

'26. 3. 6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○ 쿠바, 영해서 美 고속정 공격 4명 사살...“테러 자행하려 해”

- 2.26 언론은 쿠바에서 자국 영해에 들어온 미국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고속정을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

※ 美 국무장관은 희생자들이 美 시민권자인지 확인중이며, 고속정은 美 정부와 관계가 없고, 대부분 쿠바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공개되었다 발표

○ 美 FBI, 이란 보복 우려에 테러 경보 격상

- 3.1 언론은 이란이 최고지도자 「하메네이」를 암살(2.28)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, 미국 연방수사국(FBI)이 자국 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보도

○ 美, ‘이란국기’ 옷 입고 소총 난사...텍사스 행인 16명 사상

- 3.2 언론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란 국기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하여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이 중 3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보도

※ 연방수사국(FBI)은 범인이 ‘알라의 소유물’이라는 문구와 이란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란 공습과 관련한 테러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 부언

○ 북중미 월드컵, 치안 악화로 인한 테러발생 우려 증가

- 3.3 언론은 오는 6월 11일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의 폭력행위에 의해 내전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, 선수들과 축구팬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

※ 언론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란 공습과 관련, 중동지역 테러 단체 등과 연계된 테러 가능성 등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부언

아.테

○ 미얀마, 군사정권이 소수민족 무장단체 장악 마을 공습...17명 사망

- 2.26 언론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장악한 라카인州 지역의 한 마을을 공습해 17명이 숨졌으며, 이에 해당 무장단체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무고한 민간인이 숨졌다 보도

※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HCHR)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얀마 군정에 의한 군사작전으로 민간인 170여 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언

○ 韓 경찰·국정원, 美-이란 전쟁상황 관련 신속대응팀 파견 등 검토

- 3.3 경찰은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했으며, 美-이란 전쟁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등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도 검토중이라 발표

※ 이와 더불어 국정원은 중동상황 대응 태스크포스(TF)를 가동하여 24시간 비상 상황반 운영 및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표

역사속 테러사건

인도, 바라나시 폭탄테러

- '06. 3. 7.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* 기차역 등지에서 테러범들이 폭탄을 이용, 3차레에 걸쳐 민간인을 공격하여 23명 사망·70여 명 부상



* 인도 힌두교의 대표적 성지(인도 수도 델리로부터 동쪽 700km에 위치)

- 인도의 2대 축제 ‘홀리’ 1주일 전 성지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려, 바라나시 기차역(역장 사무실 및 열차 하부), 힌두교 하누만 사원(휴게 공간)에 폭탄을 설치하여 다수의 민간인 피해 발생
- 경찰은 테러 직후 우타르프라데시주 외곽에서 테러 용의자 1명(LeT 요원)을 발견하여 현장 사살, 폭탄 2.5kg 수거하고, 바르다시 내 주요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미폭발 고성능 폭탄을 신속히 수거
- 인도 정부는 신속히 배후를 추격하면서도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규모 종교폭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, 인도 전역의 주요 사원 및 주요 시설물에 보안군을 긴급배치하는 등 치안 대폭 강화 조치

테러 상식

< 라스카르 에 토에바(Lashkar-e-Taiba, LeT: 순결한 자들의 군대) >

- (결성) '87. 파키스탄 내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 단체의 무장조직으로 출발, 인도령 카슈미르의 분리병합 요구 및 인도를 대상으로 지하드 수행 / 테러단체 지정 미국('01.12) UN('05.5), EU('05)
- (활동지역) 인도령 카슈미르, 인도(델리-뭄바이), 파키스탄(편자브주 인근)
- (조직규모) 전성기 기준 전투원 수 1,000~3,000명 추정*
*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, 단속·분화·명칭 변경에 따라 변동 있음
- (활동수법) 연쇄 폭탄테러, 총기·수류탄을 동원한 도시 동시 다발 공격
- (주요테러) ① '08.11 뭄바이 내 호텔, 기차역, 유대인센터 등 총기·폭탄인질 테러(160명 사상)
② '01.12 인도 의회 의사당 대상 차량 돌진·총기 테러(9명 사망)